

보도시점 2025. 2. 24.(월) 11:00
2. 25.(화) 조간

배포 2025. 2. 24.(월) 09:00

농촌주민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출발!

- 지원대상 전년 보다 6만명 증가, 근골격계 질환·치매진단 진료항목 추가, 재택방문진료 시범운영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, 장관 송미령)는 2월 25일(화)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.

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, 농업인,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되었다.

- * 농촌 왕진버스 사업: 의료가 취약한 농촌 마을에 강당·체육관 등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, 고령자·취약계층 등 주민들에게 시간대별 마을 이동순회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

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·한방 진료, 치과검진, 구강검사,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,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%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

특히,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·한방 진료, 구강,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,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하고, 근골격계 운동 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또한,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

구분	2024년	2025년
총사업비	7,500백만원 * (재원분담) 국가:지자체:농협(4:3:3)	9,350백만원 * (재원분담) 국가:지자체:농협(4:3:3)
지원인원	9.1만명	15만명 예정
지원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진료항목) 양한방, 검안, 구강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초음파, X-ray, 열적외선, 저주파치료기, 체외충격파기 등 의료장비 지원 ▶ (참여의료기관) 27개 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서비스항목 확대) 기존 항목에 더하여 근골격계 질환, 치매진단, 재택방문진료 시범운영 등 농촌 지역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진료 강화 ▶ (의료기관 확대) 30개 기관

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“농업·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”이라고 하면서, “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, 농협 등과 협력하여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촌정책과 농촌사회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김상현 (044-201-1571)
		담당자	사무관	홍경희 (044-201-1574)

